

FoMo

Forced Mobilization

이슈

- 03 손기정의 금메달과 일장기 말소
- 04 논란 속에 막 내린 도쿄올림픽
- 06 유네스코, '군함도 역사왜곡' 일본 비판 결의

역사관 이슈

- 08 동남보건대학교와 함께하는 3D프린팅 모형 나눔 행사

강제동원을 말하다

- 10 98년 전 그날의 이야기

기증 자료 소개

- 12 아버지의 기억을 기증하다

역사관 전시

- 14 사진그림엽서에 새겨진 일제 침탈의 기억 신동규 컬렉션 전

우리 동네 일제강제동원유적 탐방4

- 16 다크투어리즘, 거제도를 가다!

역사관 방문기

- 18 두 딸을 위한 부산 여행지
- 19 의미있는 이색 데이트 코스

재단 소식

- 20 [강제동원 증언전]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
- 21 [온라인 학술대회]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군수회사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역사관 사용설명서

- 22 역사관 인문학 특강 역사관대학 'FoMo 학당' 부산의 일제강점기
- 23 역사관 캐릭터 '포모'와 함께 강제동원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포모가 달라졌습니다 강제동원을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포모가 새로워졌습니다. 보다 쉽고 친근한, 하지만 가볍지 않은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새로워진 포모는 격월간으로 발행됩니다.

포모는 소식지와 이름이 같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캐릭터로 강제동원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입니다.

일러두기 FOMO는 일제의 강제동원을 뜻하는 Forced Mobilization의 약칭입니다. 일제강제동원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자행한 인적·물적 동원 및 자금통제를 말합니다. 강제동원은 잊어서도, 잊혀져서도 안될 인권유린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발행일 2021년 9월 15일 통권 제21호 **발행인** 김용덕 | **편집인** 박철규 | **편집위원** 김영진, 박수란, 박태성, 안덕자, 정두나, 조미숙 | **기획·편집** 김민균 | **디자인** (주)광장A&C 051-583-8722 | **주소**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대연동 산 204-1) **T** 051-629-8600 **F** 051-629-8619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손기정의 금메달과 일장기 말소



『 손기정이 금메달을 딴 것보다 월계수 묘목으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 더 부러웠다. - 남승룡 - 』



출처 : 스포츠 조선



출처 : 동아일보사 DB

일제강점기였던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올림픽에 일본대표단으로 참여했던 손기정 선수는 당시 마의 벽으로 여겨졌던 2시간 30분대를 갠 2시간 29분 2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하지만 그는 조선의 대표가 아닌 일본 선수로 출전했기 때문에 동메달을 딴 남승룡 선수와 함께 남몰래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시상대 위에서도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그는 월계수 묘목으로 유니폼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가리고 있었다.

당시 손기정의 우승 소식을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 '조선일보'에서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8월 13일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에서는 손기정의 유니폼에 새겨진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손기정의 금메달 소식을 전한다. 다행히 당시 기술적 이유로 사진의 침삭이 종종 있어 검열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으나, 8월 25일 '동아일보'의 기사에 또 다시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해 동아일보 관계자 10여 명이 체포되었다.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송진우를 비롯해 이 사건을 직접 주도한 체육부 기자 이길용 등 10여 명은 40여 일간 모진 고문을 받았다. 조선총독부는 8월 29일자로 동아일보를 무기한 정간조치하고 자매지인 신동아 역시 폐간했다. 조선중앙일보는 9월 5일부터 자진 휴간했다. 또한, 손기정은 월계수 묘목으로 일장기를 가리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이후

경기 출전이 금지되었고, 일제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 손기정이 독일 베를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1936년 8월 9일로부터 꼭 56년 후인 1992년 8월 9일,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황영조가 마라톤 금메달의 쾌거를 이룩했다. 그날, 손기정은 누구보다 황영조의 우승을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오늘은 내 국적을 찾은 날이야. 내가 노래에 소질이 있다면 운동장 한복판에서 우렁차게 불리보고 싶다!”

글 | 편집부



논란 속에 막 내린 도쿄올림픽

지난 8월 8일 2020 도쿄올림픽이 그 막을 내렸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한해 미뤄 어렵사리 치러진 올림픽이었다. 목표했던 10위권에는 미치지 못한 종합 성적 16위의 성적이었지만, 결과를 떠나 도전을 즐기는 진정한 올림픽 정신과 치열한 노력으로 큰 감동을 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도쿄올림픽 관련 몇가지 이슈를 소개한다.

1 손기정이 일본인?



출처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래려 한국이 주권을 되찾은 후 치른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기도 했다"라며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수상 당시의 이슈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2 독도는 우리땅!



출처 : KBS

일본올림픽위원회(JOC)가 홈페이지의 '성화봉송지도'에 독도를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유를 묻는 우리나라 기자에게 "우리는 평범한 지도를 사용했다. 당신은 갈등을 말하고 있지만, 이 성화봉송지도는 어떠한 갈등과도 관련이 없다"라는 말도안되는 대답을 남겼고, 이후 항의가 이어지자 지도에서 독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희미하게 보이도록 남겨두는 꼼수를 부려 '국제 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



3 도시락 트라우마가 아직도? (feat. 윤봉길의사)



출처 : 연합뉴스

평창올림픽 당시 식중독 예방을 핑계로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했던 일본. 윤봉길의사의 도시락 폭탄이 트라우마로 남은 것인지 그들의 행사에 우리의 도시락은 아직까지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다.

4 태극기에 경례하는 자위대?



출처 : SBS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19 확산 이외에도 지나친 상업화, 골판지 침대, TV는 물론 냉장고도 없는 선수촌 숙소, 폭염, 코로나19에 확진된 선수들의 부실한 관리, 열악한 경기 환경 등 막무가내식 진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져 사상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일본이 올림픽조차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고 홍보하는 데 급급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듯하다.

글 | 편집부

유네스코, '군함도 역사왜곡' 일본 비판 결의

내년 12월까지 개선 이행 보고서 제출하도록 요구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도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22일 일본 군함도와 관련해 전쟁 중 징용된 한반도 출신자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군함도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며 강제 노역했다는 것이 피해당사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연구로 확인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 등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 다수 포함된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도쿄에 설치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서는 군함도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부정하는 옛 주민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사왜곡에 나서고 있다.

이에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관련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다. 또 나치의 만행을 가감없이 드러낸 독일 쾰른 탄광 등 사례를 참고하여 조선인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했다. 특히 '강력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으로, 일본의 약속 위반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에 조속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내년 12월 1일까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향후 일본정부의 대응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글 | 편집부



조선인의 강제동원으로 성장한 일본의 근대산업유산



미쯔비시 제3선거(船渠)

구조물의 지형 규모와 디자인은 세계에서 제일 큰 선박을 만들고 수리하려던 미쯔비시중공업(주)의 노력을 보여준다. 세 차례에 걸쳐(1943년, 1957년, 1960년) 확장된 선거(乾船渠)이다.



미쯔비시 대형 크레인

전기로 가동되는 미쯔비시 대형 크레인은 1909년 설치 당시 최신 모델이었으며, 영국을 제외한 나라들 중에서는 최초의 크레인이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조선(造船) 유산으로써 전 세계 5개 중의 하나로 일본에서 설치된 것이다.



미쯔비시 목형장

1898년 주물 제조를 위한 나무를 제작을 위해 지어진 것으로서 영국풍의 2층짜리 벽돌 건물에 목재 지붕틀을 갖추었다. 천장에 U자형 레일을 설치하여 재료들을 옮길 수 있게 되어있다.



다카시마 탄광

1869년에 개발된 다카시마 탄광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서양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을 실시한 탄광이다. 이는 증기기관으로 작동되는 일본 최초의 현대적 탄광이었다.



하시마 탄광

1869년 소규모로 출발한 하시마 탄광은 1895년부터 미쯔비시중공업(주)에 의해 채광 작업을 해져 밑까지 꾸준히 늘어나갔고, 1897년이 되는 해에는 다카시마 탄광의 석탄 생산량을 뛰어넘게 되었다. 외형에 의해 소위 군함도라고 불리며, 가혹한 환경으로 지옥섬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미이케 탄광 및 미이케 항

미이케 탄광은 다카시마 탄광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현대화된 탄광이다. 최신 서양 장비들을 수입할 수 있는 재정력을 갖춘 미쓰비시그룹 회사에 의해 미이케 지역의 현대화가 동반되었으며, 이는 자체적인 대규모 채광 기계의 생산을 가능케 하였다.



야하타 제철소

아시아 최초의 성공적인 통합 제철소인 야하타 제철소는 1901년 관영 제철소로서 조업을 개시하였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광복절 기념 이벤트

동남보건대학교와 함께하는 3D프린팅 모형 나눔 행사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역사관에서는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평화의 소녀상, 마스크트 포모 3D프린팅 모형 무료 나눔 이벤트가 펼쳐졌다. 이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 등 400여 명이 방문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글·사진 | 역사관 장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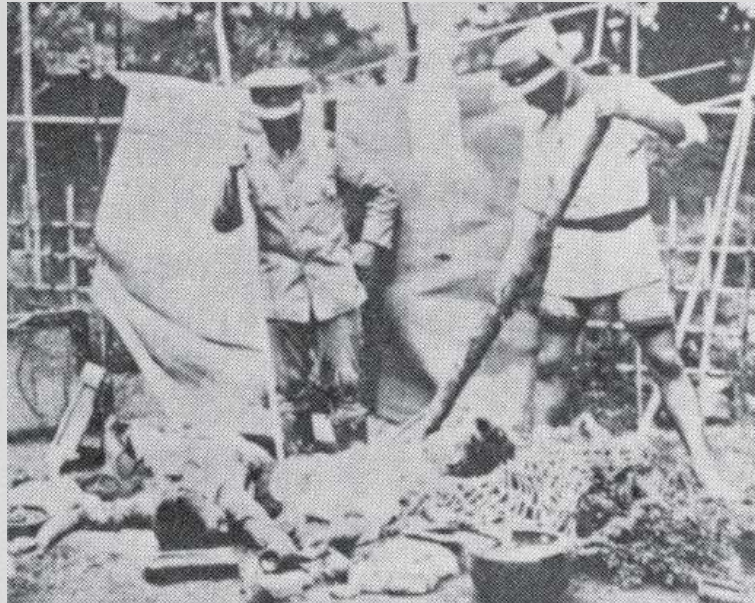


98년 전 그날의 이야기

누구도 기억하지 않은 6,661명의 무고한 희생.
이제는 기억해야 할 민족의 비극,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동경 부근의 진재(震災)를 이용해
조선인이 각지에서 방화하는 등
불령(不逞 : 불평불만이 많아 멋대로
함)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여,
현재 동경 시내에는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뿌리는 자가 있다.
동경에서는 이미 일부 계엄령을
실시하였으므로 각지에 있어도
충분히 주밀한 시찰을 가하고,
조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엄밀한
단속을 가해 주기 바란다'

1923년 9월 2일 내무성 경보국장
고토(後藤文夫)의 명의로 타전된 전문(電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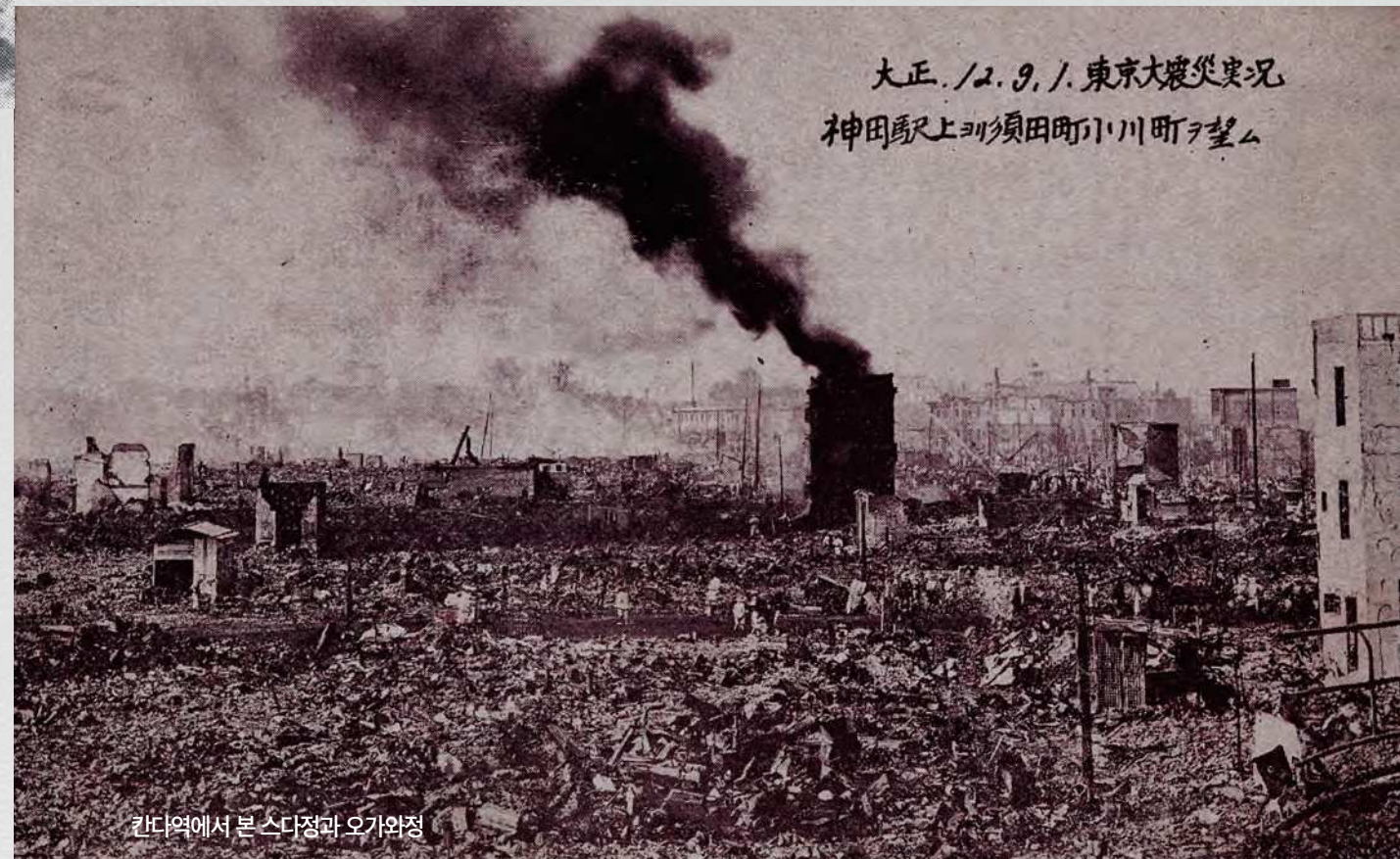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관동지역 알대에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관동대지진'. 그런데 지진 직후, 재난보다 더 참혹한
재일조선인 대학살이 시작된다. 조선인 학살은 관동대지진 발생 몇 시간 만에 퍼진 유언비어
때문이었다. 지진 후 혼란을 틈타 조선인이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소문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전파 속도 또한 매우 빨랐다. 일본 수뇌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퍼뜨렸다. 당시 일본 당국의 요청으로 조직되었던 민간인 단체 '자경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 이하의 만행을 저질렀다.
현재 한일학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희생자의 수는 6,661명에 불과하다. 진상규명 없이
98년의 세월이 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회담 등에서 단 한 차례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다. 그 사이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조선인 학살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직적인 은폐 행각을 벌였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통해
과거를 딛고 용서와 화해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조선인 폭동'의 터무니없는 소문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가운데
9월 2일 오후 6시 긴급 칙령으로 계엄령이 선포된다.

1. 조선인의 폭행 또는 폭행하려고 한 사실을 적극 수사해 긍정적으로 처리할 것
2. 풍설을 철저히 조사해 이를 사실화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긍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
3. 해외에는 특히 적화 일본인 및 적화 조선인이 배후에서 폭행을 선동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데 노력할 것

위와 같은 계엄령 아래 약 6천 명의 조선인, 일본인이 학살된다.
일본 정부는 10월 20일 학살 사건의 보도 금지를 해제하며 책임을 자경단에 돌리고
군대의 학살은 은폐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조선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에 의해서도 참혹했던 상황증언과 사진들이
있따라 공개되어 그날의 만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 내용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사진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글·사진 | 역사관 장민성



칸다역에서 본 스다정과 오가와정

아버지의 기억을 기증하다

김희승(金希昇)의 사진

역사관은 전시·교육·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구입과 기증을 통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수집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정자 님의 기증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증자 김정자 님은 故 김희승(金希昇) 님의 3녀 중 막내로, 개인 소장하고 있던 부친의 사진 2점과 유품 사진 2점을 지난 6월 역사관에 기증하였다. 남양군도*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사진과 귀환 시에 가져온 인식표 사진을 통해, 김희승의 창씨 명, 소속 부대, 동원 형태 등을 알 수 있다. 역사관은 해당 자료가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대일항쟁기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서 수증가치를 인정했다.

김희승의 소방조 출초식 단체 사진 (1938년 1월 4일 촬영)



강원도 삼척시 상장면의 소방조 출초식 때 촬영한 단체사진으로, 우측 제1열 두 번째가 김희승(당시 22세)이다. 소방조의 출초식은 일본에서부터 진행되던 소방 관련 행사로, 매년 1월 4일에 시행됐다.

조선의 소방조 출초식은 일본인 거류민단이 주최하였고, 일제는 암묵적으로 소방조의 모의 활동을 통해 조선을 근대화하고 있다는 선전용으로 활용하였다.

소방조 출초식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오전에 화재 경보 타종으로 시작하여 소방대 혹은 소방조가 모의 화재 진화 훈련을 하고 해산하는 형식이었다.



김희승의 개인 사진

피해자 김희승은 1942년경 남양군도* 소재 미상의 작업장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직후 귀환하였다. 기증자에 의하면, 부친이 해방 전 미군 포로가 되었다가 조선인이어서 풀려난 경험이 있으며, 귀환 후에는 풍토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되었고, 엄지발가락과 발뒤꿈치에 부상을 입는 등 후유장애를 겪었다고 한다.

* 남양군도는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태평양전쟁 때까지 일본이 지배했던 미크로네시아 섬들을 일컫는다.

김희승의 인식표 사진

아카츠키 2944 부대(曉第二九四四部隊) 야마다 부대(山田部隊) 오다 대(小田隊) 특작1 중대(特作一中隊) 가네모토(金元), 남양 결승의 봄(南洋決勝之春)이라고 각인되어 있다.

아카츠키 제 2944 부대는 별칭 '제3선박수송사령부 팔라우지부'로, 1943년 6월 10일 軍令陸甲 제34호에 의해 팔라우에서 편성되어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해당 지역의 선박 수송 업무에 투입되었다. 개별 부대로 썬는 가장 많은 774명의 인원 투입이 확인된다.



글 | 역사관 반선영



사진그림엽서에 새겨진 일제 침탈의 기억

Memories of the plunder of Japanese imperialism

신동규 컬렉션 展

역사관은 지난 8월 13일부터 동아대학교 역사인문 이미지연구소와 공동으로 '일제 침탈의 기억, 사진그림엽서(신동규 컬렉션)展'을 개최하고 있다. 11월 21일까지 역사관 6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한국 병합을 선전하고, 대일항쟁기 조선인의 삶의 모습이 담긴 사진엽서 300여점이 2회에 걸쳐 전시된다. 이들 사진엽서는 동아대학교 국제대학 일본학과 신동규교수(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장)가 소장한 5만여 장의 사진그림엽서 중에서 선별한 소중한 자료들이다.



1910년 춘양당 서점에서 발행한 한국병합을 기념한 엽서.

이번 전시에는
한국 병합을 선전하고,
대일항쟁기 조선인의
삶의 모습이 담긴 사진엽서
300여 점이 2회에 걸쳐
전시된다

그간 한국에서 사진그림엽서는 19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제작·발행되어 근대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1급 사료임에도 학술연구의 부수적인 소재로만 이용되어 왔다. 더욱이 100여년 또는 그 이상이 경과한 엽서들은 보존성이 약하며, 일본이나 국내의 박물관에 서조차 쉽게 열람하기 어렵다. 개인이 소장하더라도 고가 수집품으로서만 가치를 두고 공개를 꺼려해 사장 또는 망실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엽서들을 학계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관련 학술연구에 필수적 사항이다. 사장되어가는 역사 자료의 영구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뜻깊은 일이다. 특히 전시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 또한 뼈아픈 기억에 대한 반성과 올바른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도 가치있는 작업이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사진그림엽서가 지닌 풍부한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진그림엽서에 나타난 한국병합의 실상과 일제에 의해 왜곡된 역사 기억 그 자체를 전시해보고자 한다.

신동규 교수는 특히 한국 병합을 선전한 엽서들은 “일본에게는 일종의 승리의 기억이지만, 우리에게만 뼈아픈 침략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자료”라며 “실증을 가장한 보이지 않는 위장과 멸시관을 가진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조선을 향한 일본 제국주의의 멸시적이고 침탈적인 시선”을 느껴보길 당부했다.

글 | 편집부

다크투어리즘, 거제도를 가다!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강제동원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일행은 다크투어리즘*으로 거제도로 향했다. 성포항이 흰히 펼쳐 보이는 펜션에 여장을 풀니, 인심 좋아 보이는 선장님께서 우리 일행을 맞아 주셨다. 준비된 배에 곧장 승선하여 가조도의 해풍을 가르며 취도로 향했다.

취도는 거제 성포항 앞에 있는 가조도 북단에서 약 1km 떨어진 작은 돌섬이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 해군이 송진포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함포사격을 연습하기 위한 목표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섬은 거의 파괴되고 일본 해군 중장 소립 성삼랑이라는 자가 세운 포탄 비석에 이들이 남긴 시가 새겨져 있었다. 자랑스레 비석을 세운 그 오만방자함에 크게 놀랐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오랜 세월로 금이 간 비석의 틈을 보수한 흔적이 보여 아직까지도 누군가에 의해 꾸준히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 다크투어리즘은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재난, 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여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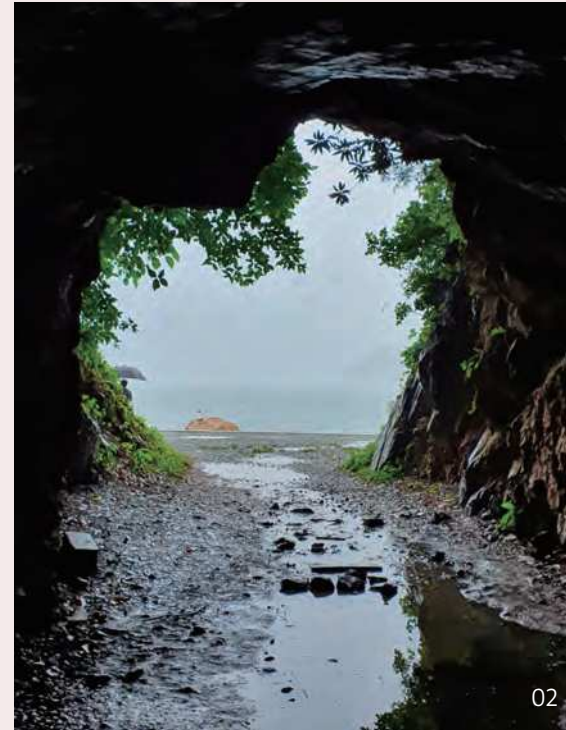


01

일본해군의 함포사격 훈련으로 2%만 남은 비운의 섬 '취도'

취도는 거제 가조도 북쪽에 있는 작은 섬이다. 러일전쟁(1904~1905) 때 일본군은 취도를 러시아함대로 상정하고 함포 사격 훈련을 했다. 바위섬 취도는 어마어마한 함포사격으로 전체면적의 98%가 파괴되어 현재는 원래 면적의 2%(1884m²)만이 남았다고 한다. '독수리섬' 취도(鷲島)는 일본군 함포사격 훈련 때 '불타는섬'(吹島)로 그 이름을 바꿨다고 전해진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자기네 영토인양 사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해군은 발틱함대와의 전투 후 기념비까지 세웠다. 기념비 맨 위에 포탄을 엮고, '섬의 원형을 파괴해 공을 세울 수 있었다'는 글귀도 비석에 새겼다.

01 취도기념비에서
02 03 근포마을 땅굴



02



03

돌아오는 길에 가조도 앞바다에서 선상 줄낚시를 하였다. 낚싯줄을 드리우는 족족 이름 모를 물고기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강태공의 손맛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었겠구나 생각하며, 잡은 물고기들은 바다에 다시 놓아주었다. 성포항에서 저녁을 마치고 멀리 보이는 가조도의 황금빛 엘도라도 카페를 향해 빨리 들어가듯 발걸음을 옮겼다. 루프탑에서 내려다 보는 빨간 가조연륙교와 고기잡이 배들의 집어등 불빛이 팔색조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워 우리의 시선을 현혹시켰다.

다음날은 옥황상제 딸인 옥녀가 죄를 지어 인간으로 환생해 내려왔다는 옥녀봉을 향했다. 낮은 산이라고 쉽게 여겼으나 호락호락하지 않아 오르는 도중에 몇 번이나 쉬고 올라 겨우 끝내는 면했다. 정상에 오르니 “자꾸 옥녀가 옷자락을 잡아 당기는 듯 등골이 서늘했다...”는 관장님의 우스개에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점심 메뉴는 장어탕으로, 낫선 맛이 살짝 두려웠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뽕안 장어 곰국에 싱싱한 장어를 톡톡 끊어 넣은 매콤 칼칼한 지리탕 같은 맛이었고, 장어탕 한 그릇에 고갈된 기력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했다.

마지막 일정은 인생샷 명소로 SNS에서 유명한 거제의 핫플레이스, 근포마을 땅굴이다. 비도 오건만 이날도 역시 젊은 아가씨들이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양 셔터를 눌러대고 있었고, 우리도 그 대열에 동참했다. H자형의 쌍굴 내부에서 우리 일행도 인생 샷을 연신 눌러대다가 거세진 빗줄기에 귀가를 서둘렀다. 돌아오는 길의 도로변에 소담스러운 수국들이 끝없이 펼쳐졌다.

*본 다크투어리즘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인생샷 명소가 된 포진지

근포 동굴로 널리 알려진 근포마을 땅굴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외지인 보급대를 동원하여 포진지 용도로 굴착하다 해방이 되자 중단된 곳이다.

글·사진 | 편집위원 박수란

두 딸을 위한 부산 여행지



오랫동안 고대하던 부산여행, 예전보다 조금 늦은 장마 탓에 실내여행지를 찾아 보다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발견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역사에 관한 자극을 아이들에게 수시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특히 일제강점기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두 딸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 기대하며 방문했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스크린을 통해 일본인들의 관리 하에 강제노역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만화로 접할 수 있었어요. 호기심 없이 그저 따라나선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 공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으로 그들이 지배한 거의 대부분의 아시아와 태평양에 걸쳐서 인적, 물적으로 불법적이며 비인도적인 강제 동원을 일삼았던 모든 기록들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펼쳐져 있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이라는 명분 하에...

섹션마다 글과 사진에 의한 역사자료가 상세해서 의미있는 부산여행지를 찾는 분들에게는 만족도가 높을 전시였습니다.

영문과 한자, 일어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한국의 역사에 관심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유익한 곳이었어요. 두 딸들에게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가장 인상깊으면서 동시에 충격적인 장소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활했을 것이라 상상이 되는 2평 남짓한 좁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이러했을까? 의심하게 만드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저희 가족의 발걸음은 그 당시, 그 곳에 간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높았던 5층 기억의 터에 걸려 있는 수많은 조선인들의 사진. 특히나 두 딸들의 또래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이들의 뒷 모습을 보면서 지켜주지 못한 어른으로서의 미안함도 생기는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은 변함이 없는데 비해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인간의 나쁜 패턴은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블로그에 간단히 소개했더니 대부분 이 곳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공간이어도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무용하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서 남녀노소 모두 역사에 대한 인식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이 공간의 쓸모도 진화하길 바랍니다.

글·사진 | 블로거 **탐서가**

의미있는 이색 데이트 코스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워서 실내 시설 위주로 데이트 코스를 알아보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개관이 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처음 방문해 봤는데, UN 조각 공원과 부산박물관이 근처에 있어 함께 다녀오면 좋겠어요.

웬만한 유료시설 못지않게 현대식으로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된 탓인지 방문객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다녀오기 좋겠죠. 3월 1일부터 상설전시실이 재개관하면서 정문을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며 발열 체크와 QR 방명록 등 꼼꼼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행하고 있었어요. 도슨트 전시해설은 잠정 중단 상태라 아쉬웠지만, 전시실 내부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 여유를 가지고 둘러보기에는 문제없을 것 같네요.

‘기억의 터널’이라는 주제로 전시실이 시작되는데 높은 층고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벽면에 빔을 쏘고 음향으로 설명이 나오더군요. 관람객



이 걸어가는 방향을 따라 영상 내용이 흘러가는데, 시작부터 울컥한 마음이었어요. 일제 강제동원이 무엇인지부터 제국주의 등 역사 설명이 상세히 잘 되어 있어 꼼꼼히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각종 시청각 자료와 실제 사용했던 물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당시 생활 진술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형과 지역별로 동원된 실체에서는 영화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군함도’ 뿐만아니라 위안부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5층에는 탄광과 태평양 전선, 위안부 등에 관한 모형이 제작되어 있었는데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입체적인 구조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기억의 터’라는 추모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퀄리티 높은 수준의 실내 시설이었어요.

다소 무겁고 어두운 과거의 역사지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와 방문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움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색적인 실내 데이트 코스를 찾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네요.

글·사진 | 블로거 **허니**

역사관 방문기 참여 안내

역사관을 방문하신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나눠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



01 전시포스터 02 강제동원 증언전 입구, 전시 서문 03 증언 전시 코너 전경 04 유네스코 세계유산 05 세계유산 등재 일본 근대산업시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국내외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서강대CGSI·서울시립미술관(SeMA)과 함께한 강제노동 전시 ‘있지만 없었던 Naming the Nameless’에 이어, 강제동원 증언전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를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7월부터 11월까지 공동으로 주최한다.

본 전시는 재단의 ‘2020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결과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본 근대산업시설 강제동원 피해자’ 4인*의 기록을 일반에 최초로 공개하고 있으며, 민족문제연구소 및 국가기록원 소장 구 위원회** 구술기록 등을 포함한 총 19인의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을 전시하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도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의 육성 증언을 지속 채록해 나갈 것이며, 기존 피해사실에 대한 단순 증언이 아닌 ‘생애구술’ 차원에서 접근하고 한국 근현대사에서 강제동원이 갖는 역사적 사실들과 관계성을 보다 다각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갖는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의 보편적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손용암(1928년생, 다카시마탄광 강제동원), △류기동(1918년생, 미이케탄광 강제동원), △손성춘(1928년생, 미이케제련소 강제동원), △이영주(1929년생, 미이케제련소 강제동원)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태평양전쟁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글·사진 | 재단 김희근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군수회사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8월 6일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군수회사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라는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각하와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로 강제동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재단의 학술대회는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대중적 관

심 확대와 연구 활성화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학술대회는 강제동원 전문가 네 분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일제강점기 조선에서의 군수회사법 시행부터 최근 강제동원 소송까지 폭넓게 다루며, 총동원 체제 하의 강제동원 문제들이 국가와 기업책임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글·사진 | 재단 한승우

발표 주제	발표자	토론자
조선에서의 군수회사법 시행배경 및 특징	이 연 식 (일본 조치대학 교수)	김 광 열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
군수회사법 제정 전후 조선인 강제동원 변화 양상	하 중 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이 상 의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
명부로 본 일본지역 군수공장 실태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	정 해 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	유 지 아 (원광대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HK교수)
강제동원 소송의 최근 현황과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	임 재 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길 윤 형 (한겨레 신문 기자)

역사관 인문학 특강

< 세부 일정 >

제1강	자산과 다산, 유배지의 형제들	김문기	7. 10.(토) 14:00~16:00	50명
제2강	3·1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	강대민	8. 14.(토) 14:00~16:00	50명
제3강	일본인 공동묘지와 한국전쟁 피란민	차철욱	9. 11.(토) 14:00~16:00	50명
제4강	일제의 침략전쟁과 제노사이드	홍순권	10. 9.(토) 14:00~16:00	50명
제5강	부산의 길과 지역정신	박창희	11. 13.(토) 14:00~16:00	50명

- 대상 : 일반 시민
- 신청 기간 : 정원 마감 시까지
- 장소 : 역사관 6층 멀티미디어실
- 참여 방법 : 역사관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한 사전 접수 (051-629-8633, 8630)

역사관대학 'FoMo 학당' 부산의 일제강점기

2021학년도 2학기

< 세부 일정 >

강연자	소속	주제	강연일	정원
이가연	부경대 사학과	일제시기 부산 이주 일본인 상공업자	10. 6.(수) 19:00~20:30	50명
김민화	부산대 사학과	근대도시 부산의 경제인 네트워크	10. 13.(수) 19:00~20:30	50명
고나은	부산대 사학과	동원된 개발: 개발재난과 구제동원	10. 20.(수) 19:00~20:30	50명
전성현	동아대 석당학술원	근대적 일상과 부산의 도시문화	10. 27.(수) 19:00~20:30	50명
선우성혜	동의대 사학과	일제강점기 동래 지역 조선인 경제인의 사회 경제활동	11. 3.(수) 19:00~20:30	50명
신정윤	부산대 사학과	일제 말 부산 부랑아의 강제동원	11. 10.(수) 19:00~20:30	50명
서만일	동아대 사학과	한국전쟁과 부산항	11. 17.(수) 19:00~20:30	50명
박경연	부산대 사학과	부산 천주교의 구호사업	11. 24.(수) 19:00~20:30	50명

- 대상 : 일반 시민
- 신청 기간 : 정원 마감 시까지
- 장소 : 역사관 6층 멀티미디어실
- 참여 방법 : 역사관 홈페이지 (문의 전화: 051-629-8600, 8616)

※ 코로나19 확산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역사관 캐릭터 '포모'와 함께 강제동원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역사관 어린이체험관에서 인형극을 상연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역사관 시설 무료 대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관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역사관의 일부 시설을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

- 1층 : 울림의 방 / 5층 : 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 6층 : 휴게실
- 문의 : 051) 629-8600

자원봉사자 모집

함께 만들어 갈 역사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 : 1365 자원봉사자포털
<https://www.1365.go.kr/>
- 문의 : 051) 629-8600, 8621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FoMo나 역사관에 바라는 점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동봉된 엽서나 역사관 대표 메일(museum@fomo.or.kr) 혹은 역사관 SNS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기부 팔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